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2.19(금) ~ 2025.12.25(목)

제공일시 2025 1 2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2.19(금) ~ 2025.12.25(목)

제공일시 2025 1 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트럼프 행정부, 해상풍력 '안보 리스크' 제기...동부 5개 프로젝트 임대 중단

-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 해안에서 추진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발전 단지 5곳의 임대 계약을 중단함
- 미국 내무부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이 군·해양 레이더에 간섭을 일으켜 '거짓 표적(false targets)'을 생성하고 실제 목표물 식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함
- 이번 조치는 소송전과 투자 위축으로 이미 압박을 받아온 미국 해상풍력 산업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 결정으로 평가됨

[\(임팩트온 2025.12.23\)](#)

### 2. 中, '배터리 굴기' 가속화...전력 개혁과 AI 데이터센터가 성장의 축

- 중국의 전력 시장 개혁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중국 에너지저장장치(ESS)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- 에너지 저장용 리튬이온 배터리 셀 출하량은 전년 대비 75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글로벌 상위 6개 ESS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 집계됨
- UBS 분석가들은 미국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현실적인 해법으로 태양광과 저장장치의 결합을 지목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12.23\)](#)

### 3. 日,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투입... 원전·재생에너지 사용 지원한다

-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을 100% 사용하는 공장과 시설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%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
- 해당 정책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(GX) 전략의 일환으로, 향후 5년간 총 2100억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
-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뿐 아니라 풍력 PPA 체결, 재생에너지와 산림탄소상쇄를 결합해 실질적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

[\(파이낸셜뉴스 2025.12.22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기후부, 내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1238억 전년비 31억↑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산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·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함
- 에너지공단의 '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'은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돼 관리체계가 일원화됨
-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'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'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원 이상 감축설비 설치를 대상으로 내년 한 해 총 1100억원 규모로 지원됨

[\(헤럴드경제 2025.12.23\)](#)

### 2. 정부, 포스코에 저가 수소 공급 추진...“수소환원제철 가속화”

-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포스코에 저가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에 대해 1kg당 1만원을 웃도는 수소를 최대 4분의 1 수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
- 포스코 실증 설비의 연간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공급할 수소 물량은 연간 2만7000톤 수준으로 추산되며,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함

[\(조선비즈 2025.12.23\)](#)

### 3. 기후부, 에너지시스템 시전환 추진...‘기후·에너지 DX·AX 전담반’ 출범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시스템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‘기후·에너지 DX·AX 전략 전담반’을 출범함
- 전담반에는 한국전력공사, 전력거래소, 에너지공단 등 18개 기후·에너지 분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함
- 기후부는 전력망과 발전 시스템 고도화,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산업계·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임

[\(뉴스트리 2025.12.22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스위스 법원, 홀심 상대 기후소송 절차 인정... 대기업 첫 사법 심리

- 스위스 추크 칸톤 법원이 인도네시아 저지대 섬 주민들이 제기한 홀심 대상 기후변화 민사 소송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법 심리 단계로 넘김
- 이번 결정은 스위스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례로,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법적 책임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

[\(임팩트온 2025.12.23\)](#)

### 2. 텐센트, 일본 데이터센터 통해 엔비디아칩 사용

- 중국 빅테크 텐센트가 일본 오사카 외곽의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엔비디아의 최신 AI칩을 사용하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
-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GPU B200 약 1만5000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, 주요 고객이 텐센트인 것으로 알려짐

[\(이데일리 2025.12.22\)](#)

### 3. "AI가 사람잡네"... '소송 리스크' 부딪힌 글로벌 AI 업계

- 글로벌 AI 업계가 데이터 무단 수집과 저작권 침해, AI 챗봇 부작용 등을 둘러싼 소송에 잇따라 직면함
- 오픈AI는 이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고,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뉴스 저작권 문제로 미디어업계와 법적 갈등을 겪고 있음

[\(파이낸셜뉴스 2025.12.22\)](#)

### 4. DHL, 항공 화물 탈탄소화 'SAF 구매' 접고 감축권 거래로 전환...스코프3 회계의 시험

- DHL이 항공 화물 부문 탈탄소화 전략을 SAF 직접 구매에서 배출 감축권 거래 중심으로 전환함
- DHL은 에어프랑스 KLM 마르티네어 카고와 협약을 맺고 3만5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권을 '복앤클레임' 방식으로 계약함

[\(임팩트온 2025.12.19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삼성, 올해 두 번째 조단위 M&A... '빅딜'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

-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 사업을 15억유로에 인수했다고 발표함

- 이번 거래는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단행한 두 번째 조 단위 인수합병으로, 냉난방공조(HVAC)에 이어 전장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됨

[\(연합뉴스 2025.12.23\)](#)

### 2. 2.6조 신안우이 해상풍력... 한화오션·현대건설 수주

-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전남 신안군 해역에 390MW 규모로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EPC 도급계약을 체결함

- 총 계약금액은 2조6400억원이며, 이 가운데 한화오션의 계약금액은 1조9716억원으로 확인됨

[\(매일경제 2025.12.23\)](#)

### 3. SK오션플랜트, 600억원 규모 메탄올 이중연료 탱커 2척 수주

- SK오션플랜트가 6800톤급 메탄올 이중연료 오일·케미컬 탱커 2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총 600억원 규모로 체결함

- 해당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발주됐으며, 2028년 5월 인도될 예정임

[\(서울신문 2025.12.23\)](#)

### 4. 포스코퓨처엠, '흑연 자립' 풀악셀... 새만금 공장 2027년 가동

-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래프가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단에 구형흑연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7년 3분기 준공을 계획함

- 준공 이후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4분기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가 흑연계 음극재 원재료를 자체 생산할 방침임

[\(디일렉 2025.12.24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2.19(금) ~ 2025.12.25(목)

제공일시 2025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EU, 저가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...재활용 산업 붕괴 막는다

- 유럽연합(EU)이 저가 플라스틱 수입 증가로 역내 재활용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수입 규제 강화를 추진함
-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법적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임
- 재활용 플라스틱과 화석연료 기반 신규 플라스틱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세관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
- EU 재활용 업계는 저렴한 수입 플라스틱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음
- 화석연료로 만든 신규 플라스틱이 재활용 제품으로 허위 기재돼 EU로 수입되며 역내 재활용 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됨
- EU는 역외 재활용 공장에 대한 실사와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, 수입 플라스틱의 실제 재활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검사 실험실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
- 내년 중 플라스틱 수입을 상시 점검하는 '수입 감시 태스크포스'를 설치하고, 필요 시 추가적인 무역 제재 조치도 검토할 방침임
- 이번 조치는 프랑스·스페인·네덜란드 등 6개국이 중국발 저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EU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
- EU 집행위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생산된 소재를 재활용 의무 기준에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새 규정을 제시해 재활용 정의와 제도의 신뢰성을 정비할 계획임

[\(임팩트온 2025.12.24\)](#)